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돌아올 일자리가 없다

농어업 비중 높고 제조업 취약
청년들 선호 일자리 크게 부족
산업 구조 전면적인 개편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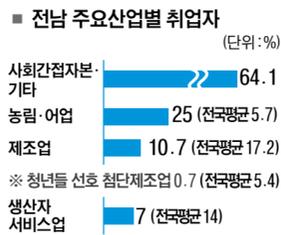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위해서는 전남의 취업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크게 부족한 반면 저임금에 근로여건이 열악한 일자리는 많아 구직난과 인력난이 반복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9일 전남도가 고용통계에 기반해 자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의 취업구조는 여전히 농림어업의 비중이 높고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며, 지식기반이나 서비스 관련 업종이 전국 평균보다 크게 못미쳤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8536명을 시작으로 2011년 7617명, 2012년 7552명, 2013년 6749명, 지난해 6313명 등 최근 5년간 무려 3만6827명의 청년이 역외로 유출됐다. 유출세는 감소하고 있으나 이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청년의 수가 줄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남의 취업자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64.1%가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25.1%가 농림어업에 각각 종사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는 공공기관 및 사업, 건설업, 도소매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 등이 해당된다. 농림어업 종사자 전국 평균 비중은 5.7%로 전남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반면 전남도내 제조업 종사자는 전국 평균 17.2%에 못미치는 10.7%이며, 청년들에게 각광받는 통신·전자부품, 의료정밀, 광학 등 첨단제조업에는 전국 평균(5.4%)에 한참 못미치는 0.7%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방송정보서비스나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업 등 소득이 높고 근로 여건이 좋은 생산자서비스업 종사자의 경우 전국 평균(14%)의 절반인 7% 수준



이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없는데, 소득도 낮고 근로여건이 열악한 일자리는 포화상태에 있어 인력난과 구직난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통계 분석에는 상용·임시·일용 등 종사자 지위별 자료는 제외돼 있어 이를 포함하면 전남도 일자리의 질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전남도 관계자는 “찾아가는 청년 희망버스”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발굴, 직접 구직자들이 찾아가 면접을 보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21일에는 디에스중공업 등 3개사의 면접에 30여명의 청년 구직자를 참여시켜 10명의 취업을 알선한 데 이어 다음달에는 광양·울진·해룡산단 내 5~10개 기업, 12월에는 구례 아이쿱생협 등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의 여건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보고, 중장기적으로는 취업구조를 청년에 맞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이흥재의 세상만사 ▶ 2면
계좌이동제 오늘부터 시작 ▶ 10면
신 팔도유람-구룡포 과메기 ▶ 18면



광주시의회(의장 조영표)와 전남도의회(의장 명현관) 의원들은 29일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김수삼 광주전남연구원 이사장 퇴진과 허성관 원장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허성관 사퇴 안하면 연구원 예산 전액 삭감”

광주시·전남도의회 해임건의안 예고...김수삼 이사장도 퇴진 촉구
 許, 취임식 준비 ‘마이웨이’...광주·전남 ‘싱크탱크’ 기능 수행 의문

허성관 광주전남연구원장 임명에 반발한 양 시·도 의회가 연구원 예산 전액 삭감, 해임 건의안 채택 등을 예고하면서 허 원장 자진 사퇴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허 원장은 현재 연구원 면담에 나서는 등 ‘버티기’에 들어간데다, 조만간 취임식과 함께 광주전남연구원 출범식도 예정하고 있어 허 원장 임명 강행 사태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원들은 29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허 원장은 자진해서 사퇴하고 (허 원장을 임명한) 김수삼 연구원 이사장은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김 이사장이 시·도민의 우려와 지역 여론을 철저히 무시하고 허 원장을 임명한 것은 대의명분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이라며 “도덕성, 지역의 비전을 제시할 소신, 간절함이 부족한

후보가 연구원 초대 원장으로 임명된 것은 지역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시·도 의회는 사퇴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의회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압박했다.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은 “자진사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 전액 삭감, 강도높은 행정사무 감사를 벌일 것”이라며 “양 시도가 공동으로 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허 원장 임명 파문이 예산 삭감 등으로 이어질 경우 광주·전남 발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할 광주전남연구원 사실상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이 떠안게 된다. 시·도 의회는 또, 다음달 초 회기 중이나 임시회라도 열어서 원장 해임 건의안을 채택하고 원장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이사회에 촉구할 방침이다. 이처럼 양 시도의회가 허 원장 자진사퇴에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허 원장은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원장 임명에 따른 지역 내 분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러한 경우 광주·전남 발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할 광주전남연구원 사실상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이 떠안게 된다.

시·도 의회는 또, 다음달 초 회기 중이나 임시회라도 열어서 원장 해임 건의안을 채택하고 원장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이사회에 촉구할 방침이다.

이처럼 양 시도의회가 허 원장 자진사퇴에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허 원장은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원장 임명에 따른 지역 내 분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대학 정시모집 11만 6천명 전체 정원의 32.5% 선발

2016학년도 4년제 대학 입시에서 정시모집 선발 비중이 지난해보다 2.3% 포인트 감소한 32.5%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12월 24~30일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올해 11만6162명을 뽑는 197개 4년제 대학의 ‘2016학년도 정시모집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정시모집 인원은 지난해보다 1만1407명 감소했고 전체 모집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 34.8%보다 2.3%

포인트 줄었다. 주요 대학별로는 서울대 784명, 연세대(서울) 991명, 고려대(서울) 1090명, 서강대 563명 등이며 광주·전남에서는 전남대 1692명을 정시모집으로 뽑는다. 또 조선대 1491명, 목포대 431명, 순천대 567명, 목포해양대 293명, 광주대 429명, 광주여대 87명, 남부대 73명, 동산대 129명, 호남대 62명, 광주교대 143명 등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U대회 선수촌 임대료 소송 장기화

광주지법 “산출 내역 다시 작성”

광주광역시U대회(이하 U대회) 선수촌 임대료 지급 소송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조정웅)는 최근 U대회 선수촌 임대료 지급 소송 공판에서, 소송을 제기한 화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대해 ‘공인된 회계사를 통해 임대료 산출 근거 내역을 다시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조합 측이 기존에 제시한 임대료 산출 근거는 시중은행 임대 아파트 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이 공인회계사에 의뢰해 임대료 산출 근거 내역을 다시 작성하고, 재판부가 이를 다시 면밀히 검토할 경우 1심 판결까지는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화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시와 광주U대회조직위원회,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U대회 선수촌 임대료 지급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U대회 기간 선수촌으로 사용된 아파트에 대한 사용료로 467억원을 타라는 게 소송의 주요 내용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정시모집 | 062)605-1114

Handcrafted by Racers.
 The new Mercedes-AMG GT.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 / Tel. 062)226-0001

Mercedes-AMG GT S Edition 1 (3,982cc 1,665kg, 자동7단), 복합연비 7.6km/ℓ (도시연비: 6.7km/ℓ, 고속도로연비: 9.1km/ℓ), 5등급, 복합CO₂ 배출량 236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자,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